

대구·경북은 문화·관광·컨벤션 분야 세계적 허브될 수 있어”

■지역이 먹고 살 길은...

섬유는 절대 사양산업 아나
시대 맞는 제품창출이 관건
産學연계 활성화 기반 충분
실리콘밸리처럼 발전 가능

대구·경북은 여러 정권의 산실이지만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GRDP(지역내총생산)가 20년째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섬유 산업은 사양화되고 유통·건설도 무너졌다. 경제 전문가인 사공일 이사장은 대구의 먹거리 마련에 어떤 복안이 있을까.

“첫째,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한 옷은 입어야 하고 섬유 관련 제품은 언제나 필요해요. 문제는 어떻게 그 시대에 맞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창출하느냐입니다. 고부가가치 섬유의류 관련 제품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에는 경주, 안동 같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은 교육·문화·관광·컨벤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세계적 교육·R&D 허브도 될 수 있습니다. 대구의 종합대학만 해도 몇 개입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약한 것이 산학연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대구·경북이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오른쪽)이 영남일보 송국진 서울취재본부장과 대구·경북지역 산업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산업화 이끈 자긍심 부각은 자제...국가발전 위해 앞서가는 모습 보여줘야”

■ ‘TK정서’ 현주소는...

사공일 이사장은 TK 출신으로, 중앙관가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고향이 힘어 된 경우도 있었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도 없지 않았을 듯하다. 그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듣고 직접 느낀 ‘TK정서’의 본질은 무엇일까.

“올해 4·13 총선을 앞두고 대구에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출마를 위해 대거 낙향하면서 진박(眞朴)·가박(假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지역의 전통적 보수 성향은 지켜나가되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 자세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을 골라야 합니다.”

“반세기 만의 ‘천지개벽’을 이끈 주축이 TK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스스로 앞세우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일류선진국을 향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들 길러 내고 대구·경북지역이 계속 국가발전을 위해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 박근혜정부가 4대 개혁 방향을 잘 잡았다고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렇다 할 국정 성과가 없었습니다. 향후 2년은 어디에 주력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대외여건이 좋지 않아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국내사정을 보면, 우리 정치권이 정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우리 정치권이 성숙한 정치 행태를 못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정치권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치권을 움직여야죠. 언론과의 소통도 물론 중요하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국민의 여론과 지지 아닙니까?”

“박근혜정부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꼭 있어왔는데요.

“국민과의 소통은 비단 청와대와 대통령 차원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

는 말단 사무관부터 장·차관까지 전부 적극 나서야죠. 먼저 정부 내의 소통부터 잘 해야 합니다. 과(課)와 과(課) 국(局)과 국(局), 그리고 타 부처, 또 청와대와 각 부처 간 소통이 잘 돼야 하는 거죠. 정책 담당자들은 언론과 직접 소통하고 만나야 합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언론사의 출입기자뿐 아니라 편집국장, 논설위원 모두를 두루 접촉해 홍보를 해야 합니다.”

“세종시로 정부 부처들이 이전한 이후 소통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시점에서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국회에 내려가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어렵다면 각 상임위원회회의라도 회의를 세종시에서 해야 합니다. 정부 관리들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느라 거리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건 국

정규직의 기득권 과보호하면 새로운 취업 기회는 줄어들어 경제둔화엔 국제여건 탓 크지만 정치권 입법 비협조도 걸림돌

정부부처들 세종시로 옮기면서 소통면에서 제약 생긴 건 사실 지금이라도 국회 옮겨야 바람직

가적 손실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법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국회선진화법이 문제입니다. 다수결에 기반한 민주주의 원칙과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일이지요. 소수당이나 정파가 반대하면 법안 상정도 안 되는 국회가 어찌 제 기능을 합니까. 옹고 그름을 떠나 (박 대통령이)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 현재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대통령마다 리더십 스타일과 국정운영 방식이 다르죠. 국정운영이 잘 되려면 먼저 장·차관에게 인사권을 돌려줘야 합니다. 인사권이 없는 장관 밑에서 자기 몸을 던져 일하기를 기대하긴 힘들 겁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청문회에 서야 되는 일

을 누가 하겠습니까. 정부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장관의 인사권 회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20대 총선이 실시됩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심판론’과 ‘진실한 사람 선택’을 이야기하는데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전체 국가 차원의 지속발전과 함께 차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나라가 일류선진국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리더십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원칙이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과 국제적 안목이 있어야죠. 기득권 싸움만 하는 정치를 탈피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이뤄야 4대 개혁도 제대로 될 수 있어요.”

대담= 송국진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정리= 김정률기자 jrkim22@yeongnam.com
사진=김현수 프리랜서 dada260@hanmail.net

신년 인터뷰

사공일

대구경북을 말하다



www.nonghyup.com

謹·賀·新·年

‘함께’의 힘은 ‘혼자’보다 강하기에...

함께의 힘은 패배를 승리로 이끌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포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듯,
농협, 그 하나의 이름으로 농업인과 국민 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의 힘-NH농협

NH농협은행포항시지부	구룡포농업협동조합	서포항농업협동조합	동해농업협동조합
신포항농업협동조합	남포항농업협동조합	오천농업협동조합	장기농업협동조합
포항농업협동조합	흥해농업협동조합	포항축산업협동조합	